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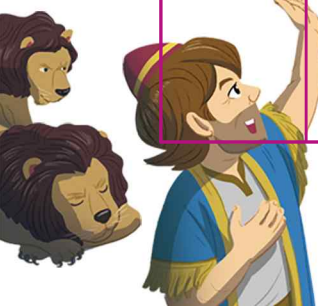
13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1일	<p>1.</p> <table border="1" data-bbox="363 443 1377 698"> <tr> <th data-bbox="363 443 874 521">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이사야 3:8, 25-26)</th><th data-bbox="874 443 1377 521">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신 일 (역대하 36:17-20)</th></tr> <tr> <td data-bbox="363 521 874 698">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장정(전쟁에 나간 남자)과 용사(용감한 군사)들이 전쟁으로 죽고, 예루살렘(시온) 성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td><td data-bbox="874 521 1377 698">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왕국 유다 백성을 죽이고,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가고,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td></tr> </table> <p>2. 아니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죄를 알려주시며 뉘우치고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자 말씀대로 벌하신 거예요.</p>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이사야 3:8, 25-26)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신 일 (역대하 36:17-20)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장정(전쟁에 나간 남자)과 용사(용감한 군사)들이 전쟁으로 죽고, 예루살렘(시온) 성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왕국 유다 백성을 죽이고,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가고,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이사야 3:8, 25-26)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신 일 (역대하 36:17-20)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장정(전쟁에 나간 남자)과 용사(용감한 군사)들이 전쟁으로 죽고, 예루살렘(시온) 성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왕국 유다 백성을 죽이고,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가고,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2일	<p>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며, 농사를 지어(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p>				
3일	<p>1. 남왕국 유다 백성이 무엇을 불안해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바벨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해 죽거나 다치게 될까봐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와 살고 있는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p>				
4일	<p>1.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p> <p>2.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며 살아야 해요.</p>				
5일	<p>1. 성읍이 건축되고, 사람이 살게 되고,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백성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p> <p>2.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p>				



14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1일	<p>1.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p> <p>2. 바벨론(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말(언어)을 가르치게 했어요.</p>
2일	<p>1. ② 너희는 우리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p>
3일	<p>1.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먹지 않기)로 다짐했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일찍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들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p> <p>[부모님께] 초등 저학년인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이 왜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꾸짖지 말고 격려해주세요.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p>
4일	<p>1.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환관장도 왕에게 죽을 수 있어요.</p> <p>2. 왕의 음식 대신 열흘(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보라고 제안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계속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p>
5일	<p>1.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학교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놀리더라도 꼭 감사 기도드리고 먹을 거예요.</p> <p>3.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도와주실 거예요.</p>



15과 다니엘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어요

1일	<p>1.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p> <p>2.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모시게 되었어요.</p>
2일	<p>1. 총리를 맡게 되었어요(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예요.</p> <p>2. 다른 신하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p>
3일	<p>1.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눅 2:37)는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등</p> <p>2.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기로 했어요.</p>
4일	<p>1.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p> <p>2.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p>
5일	<p>1.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살아 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등</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도록 노력해야 해요.</p>



16과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어요

1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잡혀 와 살게 되었어요. 왕후(왕비)가 되었어요.
2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개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3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바사에 살던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백성은 다른 관습이 있어서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왕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고 요청했어요.
4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죽기를 각오한(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이었어요. 자기와 자기 민족이 모두 죽게 된 나쁜 계획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왕은 나쁜 꾀를 꾸민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모든 유다 백성을 살려주었어요. 유다 백성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게 되었어요.
5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림일(부림절)이에요.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며 지켜요. 에스더를 통해 내가 배운 점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도 에스더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반의 외로운 아이와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다가갈 때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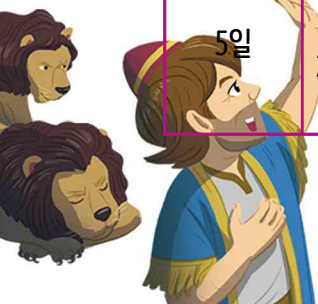
17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1일	<p>1.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겠지만,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포로 생활을 이겨냈을 거예요.</p>
2일	<p>1. 남왕국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물건을 주며 도와주라는 명령이었어요.</p> <p>2.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p>
3일	<p>1.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어요.</p> <p>2. 은 기구, 금, 여러 물건, 가축, 선물, 성전에 바칠 예물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성전의 그릇들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p>
4일	<p>1. • 돌아온 사람: 4만 2천 3백 6십 명 • 종: 7천 3백 3십 7명 • 노래하는 남녀: 2백 명</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낯설어서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등</p>
5일	<p>1.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사용하게 하려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p> <p>2.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기도, 예배)하며 표현할 거예요.</p>



18과 남왕국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1일	<p>1.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번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p> <p>2.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p>
2일	<p>1.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든 지도자(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대성통곡했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기뻐서, 나이든 지도자들은 옛날의 대단했던 성전을 기억하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 슬퍼서 울었어요.</p>
3일	<p>1.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거절하고, 우리만 성전을 짓겠다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명] 성전의 건축을 방해한 ‘그 땅 백성’(에스라 4:4)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에스라 4:1)인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앗수르(아시리아)에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앗수르 왕은 포로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주변의 이방 민족들(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남아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왕하 17:23-24).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신 7:3-4)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혼혈족으로서 이방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왕하 17:33-34). 따라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며 적대시하였고,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짓겠다고 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p> <p>2.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고발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결과 왕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였어요. Tip. 자녀들이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라 4:4-24을 읽게 하면 좋습니다.</p> <p>3.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방해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방해를 이기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p>
4일	<p>1.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둔 채 자기들 집은 멋지게 지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p> <p>2.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p>
5일	<p>1.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왕이 거둔 세금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주어 일이 멈추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도 날마다 주라고 명령했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백성들도 기뻐했을 거예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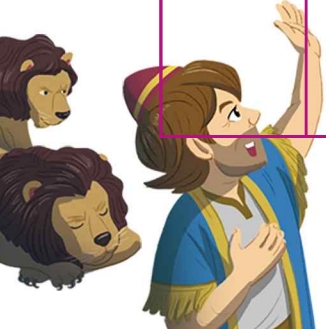
19과 거룩하게 살기로 했어요

1일	<p>1.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예요.</p> <p>2.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자녀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돌아오는 동안 원수와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어요.</p> <p>[설명]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이전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이해하려 하면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7장은 예루살렘 귀환의 전반적 개요를 설명하는 장으로, 8장은 귀환하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p>
2일	<p>1.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p> <p>2.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대로 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p>
3일	<p>1.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다른 민족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죄를 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도 또 이러니 답답할 것 같아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등</p>
4일	<p>1.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p> <p>2. 에스라 주위에 모여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어요.</p>
5일	<p>1.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방 여인과 헤어지라(끊어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을 고쳐나가야 해요.</p>



20과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쌓았어요

1일	<p>1. 예루살렘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환난)과 무시(능욕)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p> <p>2. 예루살렘성을 다시 짓기로(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p>
2일	<p>1.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기 때문이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성을 건축하라고 허락해주었고, 유다로 가는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편지와 건축에 필요한 나무(재목)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p> <p>2. 느헤미야는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묵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주셨어요.</p> <p>3.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세요.</p>
3일	<p>1. 예루살렘성을 다시 쌓아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고 말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말해주었어요.</p> <p>2. 하나님이 느헤미야 및 자신들과 함께해주시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열심을 내어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p> <p>3.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등</p>
4일	<p>1. ②, ④</p> <p>2.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은 산발랏(호론 사람), 도비야(암몬 사람), 게셈(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으며, 성벽을 쌓는 유다 사람들을 몰래 죽여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p> <p>3.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켰어요.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를 지닌 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쌓았어요.</p>
5일	<p>1.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어요. 유다 백성의 마음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등</p> <p>2.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잘해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해요, 바르고 착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등 그중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 근처 골목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주민센터에 가져다 드려요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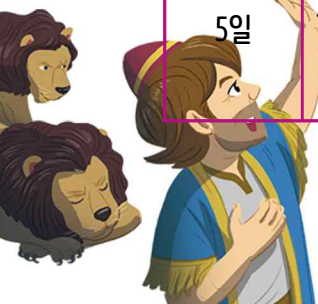
21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어요

1일	<p>1.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p> <p>2.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p>
2일	<p>1. 새벽부터 정오(낮 12시)까지 읽었어요. 이것은 긴 시간이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p> <p>2.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찬양)하자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등</p> <p>3.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등</p>
3일	<p>1.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어요 등</p> <p>2.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요.</p>
4일	<p>1. 가서 좋은 음식(살진 것)과 음료수(단 것)를 먹고 마시고,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잘(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p> <p>2.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언제일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기뻐하세요.</p>
5일	<p>1. 하나님이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p> <p>2.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게 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도 지키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p>



22과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1일	<p>1.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 후 모든 백성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잘 지키기로 다짐했어요.</p> <p>2. 말라기 선지자예요.</p>
2일	<p>1. • 하나님께 더러운 떡(부정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드리고도 언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 등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 제사를 번거롭다(귀찮다)고 여기며 코웃음을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 하나님께 좋은 짐승(수컷)을 바치기로 서원(약속)해놓고 흠 있는 짐승을 드렸어요. •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 하나님의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p> <p>[부모님께] 제시된 말라기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낱말이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내용을 다 이해시키려 하게 되면, 자녀가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한 만큼만 적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세요.</p> <p>2. 어린이가 1번에 적은 답에서 가장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겔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거짓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제사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등</p> <p>어린이 자신에게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나도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예배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등</p>
3일	<p>1. 이웃들에게 거짓말하고, 일꾼들의 품삤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속이고, 외국인을 학대하는 등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p> <p>2.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 중에서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네, 요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돈을 따르고, 외국인을 학대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고 있어요.</p> <p>3.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나 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은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죄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요,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해요 등</p>
4일	<p>1.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셨어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등</p>
5일	<p>1.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시겠다고 하셨어요.</p> <p>2. 내가 없어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주일 예배 때마다 탄생각하며 예배를 소홀히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순서마다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어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말할래요 등</p>



23과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1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땅의 모든 족속(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려고요. 2.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예요.
2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②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③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후손(의로운 가지)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2. 600-700년이 걸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어요.
3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모두 이루고 오셔야 해요. 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구원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자라 말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이 진짜 구원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
4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들레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2.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고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네,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친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해주셨던 약속들을 친구에게 알려주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줄 거예요. 2.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24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세요!

1일	<p>1. 느부갓네살은 광채가 찬란하며 두렵게 생긴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치자 신상이 다 부서져 바람에 날아가버렸고, 돌은 태산이 되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p> <p>2. 왕이 묻은 일은 너무 어려워서 신들만이 말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왕은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p>
2일	<p>1. 다니엘이에요.</p> <p>2. 다니엘과 친구들이 꿈(은밀한 일)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p>
3일	<p>1.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주면,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p> <p>2.</p> <div data-bbox="352 1072 1329 1305"> <p>금 머리 ● ————— ● 놋 같은 세 번째 나라</p> <p>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 ————— ● 느부갓네살 왕(바벨론)</p> <p>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 ————— ● 바벨론보다 못한 다음 나라</p> <p>쇠로 된 종아리 ● ————— ● 쇠같이 강한 네 번째 나라</p> </div> <p>[설명]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나라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바빌로니아(금), 페르시아(은), 그리스(놋), 로마(쇠), 로마 이후의 군소 나라(쇠와 섞여 있던 진흙)로 해석됩니다.</p>
4일	<p>1.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p> <p>2.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p>
5일	<p>1.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장래 일)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꿈으로 보여주셨어요.</p> <p>2. 하나님이세요.</p> <p>3.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요 등</p>

